

2018년 2분기 창원시 고용동향

2018. 8



I. 조사개요

1. 조사목적

-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창원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,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조사방법

-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
 -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,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.
 - 고용보험DB 법적근거
 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(고용보험통계: 승인번호 제327002호)
 - 피보험자의 포괄범위
 -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‘상용’, ‘계약직’인 근로자 단,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(주15시간) 미만인 자, 국가·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
 -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
 -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,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
 -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, 포괄하지 않은 부분(자영업자, 미가입자,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, 비경제활동인구 등)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
 -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

3. 조사기간

2018년 8월 8일 ~ 8월 13일

4. 조사사항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규모별, 업종별)
-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
-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(규모별, 업종별)
-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(지역별, 업종별)

II. 창원시 고용동향

1. 창원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

- 2018년 2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¹⁾에 가입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, 일용직 근로자 제외) 수는 24만 6,887명임. 이는 전년 동 분기 대비 1,644명(+0.7%) 증가한 수임.
-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‘10인 미만 사업장’의 피보험자 수는 6만 8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6% 증가했고, ‘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’은 9만 3,621명으로 1.0% 늘었음. 반면 ‘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’은 3만 3,564명으로 0.8% 감소했고, ‘300인 이상 사업장’은 5만 8,816명으로 1.0% 줄었음.

창원시 2018년 2분기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

(단위 : 명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총	244,933 (0.9%)	243,810 (-0.3%)	245,243 (0.1%)	245,064 (0.5%)	245,864 (0.9%)	245,764 (0.8%)	246,887 (0.7%)
10인 미만	57,956 (3.0%)	58,129 (1.1%)	59,327 (2.4%)	59,882 (1.7%)	61,829 (3.8%)	60,477 (4.0%)	60,886 (2.6%)
10인 이상 100인 미만	91,262 (1.2%)	92,418 (0.7%)	92,650 (1.5%)	92,681 (2.9%)	91,595 (1.7%)	92,446 (0.0%)	93,621 (1.0%)
100인 이상 300인 미만	35,476 (1.9%)	33,831 (-3.1%)	33,849 (-4.6%)	33,590 (-4.2%)	33,575 (-2.8%)	34,051 (0.7%)	33,564 (-0.8%)
300인 이상	60,239 (-2.1%)	59,432 (-1.5%)	59,417 (-1.4%)	58,911 (-1.4%)	58,865 (-1.2%)	58,790 (-1.1%)	58,816 (-1.0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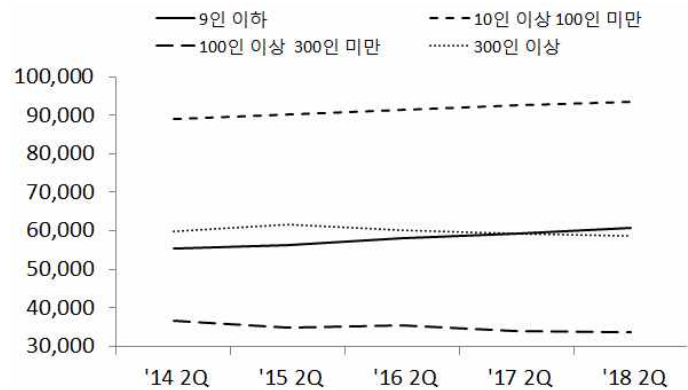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1)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고용보험법 제8조, 10조 및령 제2조, 제3조)

-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(단,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)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
-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, 단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음.
-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
-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
- 외국인근로자(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중 보험가입신청자,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)

- 사업장 규모별로 피보험자(근로자)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, 1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음.
- 이는 업종별로 제조업의 피보험자 감소와 비교적 개별 사업장의 고용규모가 적은 서비스업의 피보험자가 증가하는 현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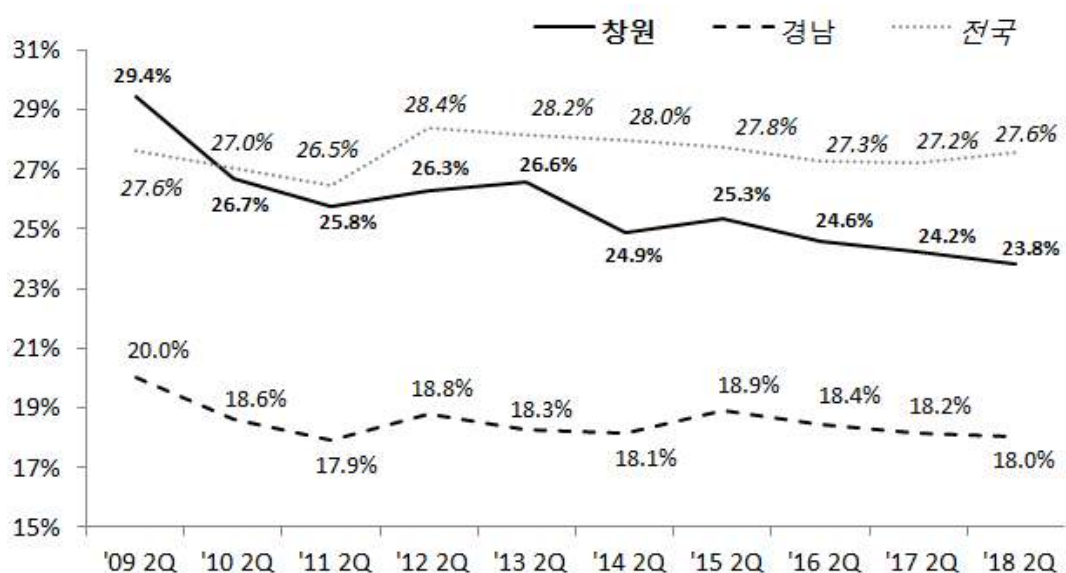
창원 규모별 피보험자 수 추이

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- 2018년 2분기 경남의 피보험자 수는 73만 7,66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8% 감소했고, 전국 피보험자 수는 1,317만 6,226명으로 2.7% 증가했음.
- 지난 10년 간 전체 피보험자 수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, 창원은 2009년 2분기 29.4%에서 2018년 2분기 23.8%로 비중이 줄었음. 이는 전국과 경남의 비중 변화와 비교해 비중 감소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.

창원·경남·전국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변화

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2. 창원시 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

- 2018년 2분기 창원 총 피보험자 수가 소폭 증가(0.7% 증가)한 가운데,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. 반면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.
- 업종별(대분류)로 제조업 피보험자 수는 11만 919명으로 전년 대비 0.5% 감소했고,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는 12만 2,451명으로 1.9% 증가했음. 지역 주력산업들의 실적 악화로 제조업의 고용여력은 감소하는 가운데, 제조업 퇴직 인력들을 서비스업이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또한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것도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.

창원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전체	244,933 (0.9%)	243,810 (-0.3%)	245,243 (0.1%)	245,064 (0.5%)	245,864 (0.9%)	245,764 (0.8%)	246,887 (0.7%)
제조업	113,914 (-2.4%)	111,711 (-3.3%)	111,422 (-2.2%)	111,075 (-1.5%)	111,237 (-1.1%)	110,883 (-0.7%)	110,919 (-0.5%)
서비스업	117,551 (4.2%)	118,189 (2.4%)	120,136 (2.2%)	120,227 (2.6%)	120,906 (2.9%)	121,222 (2.6%)	122,451 (1.9%)
건설업	10,380 (2.3%)	10,645 (3.4%)	10,584 (2.0%)	10,474 (0.4%)	10,429 (0.2%)	10,330 (-3.0%)	10,314 (-2.6%)
기타	3,088 (0.0%)	3,265 (1.8%)	3,101 (0.4%)	3,288 (0.3%)	3,292 (-1.4%)	3,329 (2.0%)	3,203 (3.3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서비스업은 '도매 및 소매업', '운수 및 창고업', '숙박 및 음식점업', '정보통신업', '금융 및 보험업', '부동산업', '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', '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', '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', '교육 서비스업', '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', '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', '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'을 포함하고 있으며, 기타는 '농업, 임업 및 어업', '광업', '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', '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', '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', '국제 및 외국기관'을 포함함.

-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가 감소추세인 가운데, 기계장비제조업은 5개 분기 연속 피보험자 수 증가를 보였음.

제조업 피보험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, ‘기계장비’가 3만 1,501명으로 가장 많았고, ‘자동차 및 트레일러’ 1만 8,527명, ‘전기장비’ 1만 2,729명, ‘1차 금속’ 1만 2,273명, ‘기타 운송장비’ 9,855명 순임.

창원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

(단위 : 명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제조업	113,914 (-2.4%)	111,711 (-3.3%)	111,422 (-2.2%)	111,075 (-1.5%)	111,237 (-1.1%)	110,883 (-0.7%)	110,919 (-0.5%)
기계장비	30,345 (-2.9%)	30,372 (-0.3%)	30,476 (0.4%)	30,647 (2.0%)	31,057 (2.0%)	31,501 (3.7%)	31,454 (3.2%)
자동차	19,087 (0.1%)	19,143 (0.3%)	18,928 (-0.8%)	18,892 (-2.2%)	18,907 (-2.2%)	18,527 (-3.2%)	18,380 (-2.9%)
전기장비	12,733 (-0.7%)	12,553 (-2.5%)	12,846 (0.9%)	12,696 (0.6%)	12,624 (1.4%)	12,729 (1.4%)	12,623 (-1.7%)
1차금속	12,615 (-3.8%)	12,499 (-3.6%)	12,517 (-0.8%)	12,480 (-1.8%)	12,495 (-1.1%)	12,273 (-1.8%)	12,126 (-3.1%)
기타 운송장비	13,092 (-8.2%)	11,349 (-17.7%)	10,918 (-16.6%)	10,002 (-17.3%)	9,912 (-14.8%)	9,855 (-13.2%)	9,956 (-8.8%)
금속가공	8,370 (-5.1%)	8,168 (-6.4%)	8,131 (-2.9%)	8,087 (-2.0%)	8,047 (-2.6%)	8,000 (-2.1%)	8,051 (-1.0%)
전자부품	6,055 (-0.5%)	5,952 (-2.8%)	6,019 (-0.6%)	6,076 (-0.7%)	6,062 (0.3%)	6,134 (3.1%)	6,215 (3.3%)
의료, 정밀기기	3,239 (1.0%)	3,308 (3.9%)	3,321 (2.5%)	3,341 (3.3%)	3,374 (1.6%)	3,319 (0.3%)	3,490 (5.1%)
고무 및 플라스틱	1,866 (2.6%)	1,884 (4.8%)	1,909 (2.3%)	1,899 (3.0%)	1,887 (0.4%)	1,812 (-3.8%)	1,823 (-4.5%)
식료품	1,628 (4.3%)	1,690 (2.2%)	1,545 (-5.1%)	1,571 (-5.4%)	1,573 (-5.6%)	1,493 (-11.7%)	1,501 (-2.8%)
기타	4,884 (3.2%)	4,793 (-1.9%)	4,812 (-1.5%)	5,384 (9.2%)	5,299 (9.2%)	5,240 (9.3%)	5,300 (10.1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※ 기타 제조업은 ‘가구’, ‘가죽·가방 및 신발’, ‘목재 및 나무제품(가구제외)’, ‘비금속 광물제품’, ‘섬유제품(의복제외)’, ‘음료’, ‘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’, ‘의복·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’, ‘펄프·종이 및 종이제품’, 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(의약품 제외)’을 포함함.

- 제조업 중 전년 대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제조업은 ‘기계장비’(+3.2%), ‘전자 부품’(+3.3%), ‘의료·정밀기기’(+5.1%) 등이며, ‘기타 운송장비’(-8.8%), ‘고무 및 플라스틱’(-4.5%), ‘1차 금속’(-3.1%), ‘자동차’(-2.9%), ‘식료품’(-2.8%), ‘전기장비’(-1.7%), ‘금속가공’(-1.0%) 등은 감소했음.

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

(단위 : 명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서비스업	117,552 (4.2%)	118,189 (2.4%)	120,136 (2.2%)	120,227 (2.6%)	120,906 (2.9%)	121,222 (2.6%)	122,451 (1.9%)
사회복지	27,809 (6.1%)	28,452 (5.4%)	28,883 (3.9%)	29,290 (4.2%)	29,754 (4.3%)	29,526 (3.8%)	30,095 (4.2%)
임대	15,276 (0.0%)	15,716 (4.1%)	16,087 (5.3%)	16,158 (7.0%)	16,234 (6.2%)	16,547 (5.3%)	16,621 (3.3%)
도·소매	13,903 (6.9%)	13,741 (1.7%)	13,858 (-0.3%)	13,950 (0.8%)	14,065 (1.2%)	14,209 (3.4%)	14,262 (2.9%)
전문, 과학 및 기술	11,783 (1.0%)	11,699 (-1.1%)	11,628 (-1.3%)	11,392 (-1.3%)	11,343 (-2.0%)	11,115 (-5.0%)	11,278 (-3.0%)
운수·창고	10,724 (1.9%)	10,352 (-4.2%)	10,698 (-0.2%)	10,700 (0.5%)	10,619 (2.1%)	10,607 (2.5%)	10,611 (-0.8%)
숙박·음식	7,849 (1.6%)	6,956 (-0.5%)	7,703 (-1.9%)	7,323 (0.4%)	7,627 (2.4%)	7,056 (1.4%)	7,482 (-2.9%)
교육	6,011 (21.9%)	6,237 (10.9%)	6,614 (10.0%)	6,769 (10.5%)	6,961 (11.8%)	7,131 (14.3%)	7,360 (11.3%)
협회, 개인	5,960 (1.1%)	5,999 (2.2%)	6,120 (2.7%)	5,610 (-5.2%)	5,528 (-5.9%)	5,645 (-5.9%)	5,692 (-7.0%)
금융·보험	5,230 (1.6%)	5,190 (-0.5%)	5,171 (-1.1%)	5,194 (-0.1%)	5,154 (-1.9%)	5,168 (-0.4%)	5,142 (-0.6%)
부동산업	4,878 (4.9%)	4,854 (1.7%)	5,001 (2.5%)	4,951 (3.1%)	4,934 (1.8%)	4,941 (1.8%)	5,125 (2.5%)
공공행정	3,846 (8.7%)	4,400 (-2.7%)	3,610 (-6.1%)	4,082 (-2.5%)	3,942 (11.5%)	4,890 (11.1%)	4,308 (19.3%)
정보통신	2,183 (-3.3%)	2,245 (3.2%)	2,378 (8.9%)	2,409 (3.0%)	2,401 (3.9%)	2,327 (3.7%)	2,370 (-0.3%)
예술, 스포츠 등	2,099 (4.2%)	2,348 (14.0%)	2,385 (13.6%)	2,399 (13.8%)	2,344 (1.0%)	2,060 (-12.3%)	2,105 (-11.7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- 창원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’가 3만 95명으로 가장 많았고, ‘사업시설 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’(1만 6,621명), ‘도매 및 소매업’(1만 4,262명), ‘전문, 과학 및 기술’(1만 1,178명), ‘운수 및 창고업’(1만 611명), ‘숙박 및 음식점업’(7,482명), ‘교육’(7,360명)이 뒤를 이었음.
- 서비스업 중 전년 동기 대비 피보험자 수가 증가한 업종은 ‘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, 행정’(+19.3%), ‘교육’(+11.3%), ‘보건업 및 사회복지’(+4.2%), ‘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’(+3.3%), ‘도매 및 소매’(+2.9%), ‘부동산’(+2.5%) 등이며, 감소한 업종은 ‘예술, 스포츠 및 여가’(-11.7%), ‘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’(-7.0%), ‘전문, 과학 및 기술’(-3.0%), ‘숙박 및 음식점’(-2.9%), ‘운수 및 창고업’(-0.8%), ‘금융 및 보험업’(-0.6%), ‘정보통신’(-0.3%) 등임.

2. 창원시 고용보험 자격 취득·상실 현황

- 노동이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피보험 자격 취득자(취업자)는 2018년 2분기 3만 1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.7% 증가했음.
취득자 증가는 경력직의 증가가 주도했음. 경력취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.5% 증가한 2만 7,218명, 신규취득자 수는 3.3% 감소한 2,930명을 기록했음.

창원 고용보험 취득·상실자 수

(단위 : 명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취득자	28,961 (2.2%)	33,615 (0.7%)	27,001 (-6.8%)	26,217 (1.8%)	23,399 (-9.1%)	35,462 (5.5%)	30,148 (11.7%)
신규취득자	3,181 (-5.8%)	3,911 (-10.4%)	3,029 (-4.8%)	3,033 (2.1%)	2,634 (-16.1%)	4,173 (6.7%)	2,930 (-3.3%)
경력취득자	25,780 (3.2%)	29,704 (2.4%)	23,972 (-7.0%)	23,184 (1.8%)	20,765 (-8.1%)	31,289 (5.3%)	27,218 (13.5%)

※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·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, ‘전분기 피보험자 + 당분기 취득자 - 당분기 상실자’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- 2018년 2분기 고용보험 상실자(퇴직자)는 2만 8,74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.3% 증가했음.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건수도 1만 5,142건으로 8.2% 증가했음.

창원 고용보험 상실자 및 실업급여 지급 건 수

(단위 : 명, 건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고용보험 자격 상실자	27,468 (6.4%)	32,540 (-3.4%)	24,937 (-9.2%)	26,345 (0.5%)	22,197 (-12.2%)	35,379 (8.7%)	28,740 (15.3%)
실업급여 지급	13,879 (8.2%)	14,172 (3.3%)	13,990 (0.8%)	13,819 (3.1%)	11,958 (-1.9%)	14,827 (4.6%)	15,142 (8.2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※ 분기 말 상시(상용+임시) 근로자 기준,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

- 업종별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자 수를 보면, 제조업의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전년 대비 31.4% 증가한 1만 1,712만 명, 상실자 수는 31.1% 증가한 1만 1,674만 명을 기록했음.

서비스업의 고용보험 취득·상실자 수는 전년 대비 2.5% 증가한 1만 6,935명, 상실자 수는 7.8% 증가한 1만 5,460명을 기록했음.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취득·상실자 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도가 낮은 데 따른 것임.

창원 고용보험 취득·상실자 수

(단위 : 명)

	'17 2Q		'18 2Q	
	취득	상실	취득 (증감)	상실 (증감)
제조업	8,915	8,907	11,712 (31.4%)	11,674 (31.1%)
서비스업	16,530	14,336	16,935 (2.5%)	15,460 (7.8%)
건설업	1,373	1,331	1,278 (-6.9%)	1,268 (-4.7%)
기타	183	363	223 (21.9%)	338 (-6.9%)
합계	27,001	24,937	30,148 (11.7%)	28,740 (15.3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4. 창원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현황

- 창원의 총 피보험자 수는 감소한 가운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수는 전년 대비 0.8% 증가한 4만 2,629개임.

규모별로 살펴보면, 상시 근로자 수 ‘300인 이상’ 사업장 수는 124개(-1.6%), ‘100인 이상 300인 미만’ 337개(-4.3%), ‘10인 이상 100인 미만’ 5,414개(-0.7%)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보였음. 반면 ‘10인 미만’ 사업장 수는 3.5% 증가한 36,755를 기록했음.

창원 규모별 사업장 수

(단위 : 명)

	'16. 2Q	'17				'18. 1Q	'18. 2Q
		1Q	2Q	3Q	4Q		
총	37,018 (-1.8%)	40,554 (6.5%)	41,485 (4.2%)	41,872 (6.5%)	42,058 (2.3%)	40,412 (-0.4%)	42,629 (2.8%)
10인 미만	31,766 (-1.6%)	34,654 (6.6%)	35,553 (4.4%)	35,827 (6.9%)	35,985 (2.4%)	34,580 (-0.2%)	36,755 (3.4%)
10인 이상	4,804	5,416	5,454	5,563	5,597	5,367	5,414
100인 미만	(-3.5%)	(6.3%)	(2.9%)	(3.9%)	(2.4%)	(-0.9%)	(-0.7%)
100인 이상	328	356	352	356	351	340	337
300인 미만	(-6.3%)	(5.3%)	(5.7%)	(5.3%)	(-0.8%)	(-4.5%)	(-4.3%)
300인 이상	120 (11.1%)	128 (4.9%)	126 (3.3%)	126 (0.8%)	125 (-2.3%)	125 (-2.3%)	124 (-1.6%)

<자료 : 고용보험DB, 고용노동부>

Ⅲ. 요약 및 시사점

- 소규모·서비스업 중심으로 근로자 수 증가, 대규모·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 기조
 - 기계장비제조업 5개 분기 연속 피보험자 수 증가
 - 최저임금에 따른 줄어든 급여 차이, 인력채용 시 경력직 선호 뚜렷
 - 실업급여 지급 건수,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기록
- 2018년 2분기 창원지역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(이하 근로자)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,644명(+0.7%) 증가한 24만 6,887명임.
- 소규모·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, 대규모·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.
-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 비중은 2009년 2분기 29.4%에서 2018년 2분기 23.8%로 10년 사이 5.6%p 하락했음.
-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는 최근 생산과 수출실적 회복을 보이고 있는 기계장비가 3.2% 증가(5개 분기 연속 증가)한 3만 1,454명을 기록했으며, 전자부품(+3.3%), 의료·정밀기기(+5.1%), 기타제품(+10.1%)은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. 하지만 조선, 항공 등이 주를 이루는 기타운송장비의 근로자 수는 8.8% 감소했으며, 자동차 및 트레일러(-2.9%), 1차금속(-3.1%) 등은 감소했음.
- 서비스업 업종별로는 사회복지(+4.2%), 교육(+11.3%), 공공행정(+19.3%)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.
- 취업자 수(피보험 자격 취득자)는 3만 1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.7% 증가했음. 경력취업자가 13.5% 증가한 2만 7,218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음. 신규취업자는 2,930명으로 오히려 3.3% 감소했음.
- 인력 채용에 있어 경력직 선호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력인력과 신규인력에 급여차가 크지 않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.
- 퇴직자(고용보험 자격 상실자) 수는 전년 대비 15.3% 증가한 2만 8,740명으로 나타났고,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1만 5,142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음.